

“5·6월 매주 금요일엔 협의회서 보수교육 받으세요”

1일 8평점 이수 가능...8일 첫 교육

사회복지전문교육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5월과 6월 2개월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보수교육일’로 지정, 하루에 8평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편성해 사회복지사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오는 8일 첫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직무 및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영역, 사회복지실천 영역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3만2000원(1평점당 4000원)이다.

강사진에는 교수회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소장, 이영호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태봉 서귀포시장 애인종합복지관장,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장, 정진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복지경영지원센터 소장 등(가나다 순) 사회복지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유명대학 교수들이 포진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영역에서 현장실무경험 등을 토대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직무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복지사에게 제공,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등을 높여 사회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해 사회복지 종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	교육영역	교육내용	강사	시간
5, 8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및 정부복지정책 동향	양은심	09:00~11:00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임태봉	11:00~12:00 13:00~14:00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원칙	정진모	14:00~18:00
5, 15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정석왕	09:00~11:00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양은심	11:00~12:00 13:00~14:00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체계구축과 지역네트워크전략	이용표	14:00~18:00
5, 22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양은심	09:00~11:00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정석왕	11:00~12:00 13:00~14:00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실무	고수희	14:00~18:00
5, 29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및 정부복지정책 동향	양은심	09:00~11:00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임태봉	11:00~12:00 13:00~14:00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원칙	정진모	14:00~18:00
6, 5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정석왕	09:00~11:00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및 정부복지정책 동향	양은심	11:00~12:00 13:00~14:00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체계구축과 지역네트워크전략	이용표	14:00~18:00
6, 12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및 정부복지정책 동향	양은심	09:00~11:00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정석왕	11:00~12:00 13:00~14:00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와 긍정성	이영호	14:00~18:00
6, 19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및 정부복지정책 동향	양은심	09:00~11:00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정석왕	11:00~12:00 13:00~14:00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실무	고수희	14:00~18:00
6, 26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임태봉	09:00~11:00
	실천윤리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정석왕	11:00~12:00 13:00~14:00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해 및 정부복지정책 동향	양은심	14:00~18:00

자 33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실무교육과 자원봉사자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벌였다.

올해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예산과 회계 등 행정업무에 대해 도움을 주는 행정실무교육을 시설·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는 등 20여개 과정에서 2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 문의=702-3783~4.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 인터넷 공개

세입·세출예산서 등...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상시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을 공개한다.

공개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시설 등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127곳이며, 향후 모든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된다.

공개내용은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운영 프로그램 ▲당해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이다. 도·행정시·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내 전용 배너를 개설해 게시한다.

제주도는 운영상황 공개 결과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기능보강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 배제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를 공개해 시설 운영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수·수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 공개가 보조금 및 후원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설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로, 월 48만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주 3일(12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20만원 씩이며,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신청

이 가능하며, 매달 1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공공보건의료분야투자 확대
시설 탐방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봉개교장예체합·소식마당
장애인예능발표회·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아보육 활성화 세미나

청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신뢰, 책임을 다합니다.

대표이사 이 상 미 청림종합건설(주)

공공보건의료분야 투자 대폭 확대

제주도, 보건소 증설 · 응급의료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개발형병원 도입과 관련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료체계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4곳인 보건소를 6곳으로 늘려 농어촌지역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및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26억2000만원을 들여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신축하고, 내년에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제주시 아라동에 지하 3층 지상 5층 530병상 규모의 제주대학교병원을 신축·이전했고, 신축된 병원에는 200억원이 투입된 암센

터를 유치해 암 연구와 예방·진단 등 종합적인 암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산남지역의 균형적인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7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서귀동에 150병상 규모의 제주재활전문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방식으로 40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센터로 격상하기 위해 응급실 시설·의료장비 보강 사업에 3억6400만원, 농촌지역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6800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3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료원 입원환자의 질 높은 진료 및 요양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80병상 규모의 요양시설도 신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외에 뇌졸중 등 3대 중증질환자 발생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라병원을 뇌졸중 질환 특성화센터로 지정해 1억원을, 제주대병원을 심근경색증·중증외상질환 특성화센터로 지정해 1억75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7급 이하 사회복지직 인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7급 이하 사회복지직 등에 대한 인사를 4월 27일 실시했다.

▲제주시 △7급=강경희(주민생활지원과) 고은희(이도2동) 정경미(조천읍) △8급=이영림(사회복지과) 강영심·김미숙(양성평등지원과) 김석기(애월읍) 문성미(용담1동) 양경희(용담2동) 문연희(삼도2동) 신혜경(일도2동) 안연정(구좌읍) 이순삼(오라동) 이가은(한림읍) 김명숙(애월읍) △9급=이미소(양성평등지원과) 이소희(삼도1동) 강수원(삼양동) 윤진희(외도동) 김형미(조천읍)

▲서귀포시 △7급=이부형(주민생활지원과) 이현주·허봉심(사회복지과) 장은심(양성평등지원과) 이명희(대정읍) 오회경(표선면) 양연근(천지동) △8급=김창수(사회복지과) 김경아(양성평등지원과) 이옥태(정방동) 강충근(영천동) △9급=송미영(성산읍) 김혜영(표선면) 송은아(대륜동) 현양희(대천동)



민요공연과 어우러진 시장놀이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은 4월 2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묵, 순대, 돼지족발 등 음식들과 노인들의 욕구과악을 통해 구입하고자 했던 물품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앞마당에서 시장놀이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돌민속에 속한 봉사팀이 흥겨운 민요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애인·자원봉사자 ‘손에 손잡고’ 제10회 장애인한 마음축제 일환으로

4월 22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인근에서 열린 제17회 장애인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에 참가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봄기운이 완연한 거리를 걷고 있다.

“각종 공문서 이젠 음성으로 들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이달부터 공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말하는 공문서’를 도입해 시행한다.

제주도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진 노인층 및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달 말하는 문서인식 시스템인 ‘보이스아이(Voice-Eye)’를 도입,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에서 시범 운영했다.

‘말하는 공문서’를 적용해 공문서를 출력하면 오른쪽 상단에 1.8cm의 정방형

이차원 바코드가 생성되며, 바코드에 인식기를 대면 공문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문서나 안내문을 발송할 때 또는 복지단체나 노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문서에 음성정보인식 바코드를 인쇄해 주게 된다.

보이스아이 인식기는 시각장애인복지관과 탐라장애인복지관 등 5곳의 복지단체에 6대씩 보급돼 있으며, 단계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된다.

제주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추경희씨

춘강장애인근로센터(원장 양광호) 섬유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추경희씨(사진)가 제29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한복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오정림씨와 고애순씨는 같은 부문에서 각각 동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추씨와 오씨는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



‘보명 배우명’ 문화체험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4월 18일 국제결혼 및 학업 등으로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제주이주민센터 가족 등 36명과 함께 제주유리시의 성을 관람하는 등 ‘보명 배우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행사는 눈높이에 맞춰 진행돼 즐거웠고 오랫동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제주영락복지관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생필품, 간식, 밀반찬, 도서 등을 꾸준히 지원해 한국문화이해와 현지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올해의 장애인상’ 에 양영순씨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장애인상에 양영순씨(55·사진)가 선정됐다.

지체장애 1급인 양씨는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 등에 앞장섰으며, 옷수리점을 운영하면서 동료 장애인들에게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견습공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 여성장애인 권익 향상 도모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상에는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고도 도

자기 공예 및 색종이 접기 등에 재능을 발휘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양재석씨(24)가 선정됐다. 양씨는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학교 특수학급 방과 후 도예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어버리대상에는 지적장애 1급과 3급 남매를 훌륭히 키운 김병규씨(67)가 선정됐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두 남매를 헌신적으로 보살피 1급 장애를 지닌 딸을 사회복지사로 성장시켰다.

장애인도우미대상에는 애월읍 장애인지원협의회 소속 고성숙씨(56)와 제주소방서직할남성용소방대가 선정됐다.



하나아트 사랑의집서 사물놀이 공연

사물놀이 하나아트(대표 고석철)는 4월 18일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의집(원장 김호성)을 찾아 ‘그곳에서 신명의 울림을 만나다’라는 사물놀이와 타악 공연 등을 펼쳤다.

이날 하나아트가 펼친 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이 즐겁고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설탐방

(18)서귀포시장예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과 함께 희망을 꿈꾼다

서귀포시장예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하 서귀장북)은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의 기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99년 7월 서귀포시 토평동에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 1일 평균 80여명이 서귀장북을 이용했으나 지난해에는 10배 이상 늘어 1일 평균 950여명이 이곳에서 치료 및 교육, 재활사업에 참여했다.



장애인 관광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 전개 “프리미엄 브랜드 창출...행복지수 UP”

서귀장북은 가치혁신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관광업체와 여행사, 숙박업체,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민·민,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장애인 제주관광사업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같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직접 관광지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45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여가문화관광에 대한 장애인의 꿈과 희망(욕구)을 이뤄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모한다.

임태봉 관장은 “도내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돼 있어 틈새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의 대표산업인 관광과 복지를 결합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관광가이드반 등 3개 과정에서 장애인 3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는 7월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테마·맞춤형 관광상품도 20여가지가 개발된 상태다.

또 언어 및 인지 심리 행동상의 지체를 보이는 장애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비우치사업’과 장애아동의 문제 행동 및 정서적 학습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우리아이정서지킴이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장애아동을 위해 5월 1일 서귀포시 1호 광장 주변에 ‘서귀포재활치료센터’를 연다. 이 곳에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인지행동 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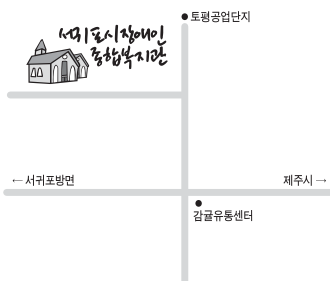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운영해 여가문화 영역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와

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애·비장애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장애·비장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사회적 일탈예방’ 테마교실,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주니어 웰빙클리닉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관장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복지 실현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복지관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제주도,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전국 1위

국정시책 지자체 평가 2007년 8위서 7계단 상승

제주지역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481명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 소득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참여자가 13.3%(64명)에 달해 2008년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주가 전북과 경북을 밀어내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취업이 가능한 제조업체 등 산업체가 많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간병, 집수리 청소사업, 야생초를 이용한 전통차 제조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에 집중, 2007년 자활성공률 전국 8위에서 무려 7계단이나 상승, 1위에 올라서

는 기염을 토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75억 500만원을 자활사업에 투입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및 창업 등으로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73억9400만원이 투입돼 101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자활의지를 다졌다.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의달 5월 ‘재미 가득, 행복 가득’

청소년가요제등 행사 ‘풍성

가 열린다.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들의 개성과 특기를 마음껏 발휘할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 40여개가 개최된다.

우선 오는 9일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우러져 세대의 벽을 허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

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에서 ‘가족·제자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가 열린다.

또 15일 오후 7시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는 청소년의 장기와 노래 실력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청소년가요제’가 개최되며, 18일 ‘성년의 날’에는 제주향교와 정의향교 주관으로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정의향교에서 전통 성년례가 재현돼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23일에는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제주YWCA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오감으로 느끼는 숲기행

제주청소년지도사회(회장 강철남)는 4월 11일 난대산림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남시험림에서 청소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세계 속 자연유산과 함께 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숲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숲 생태 체험 및 숲에서 사람들의 흔

적 찾기, 사려니옴 등반, 폐목목걸이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사 및 운영·관리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장애는 삶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봉개교 어린이 장애체험활동

“안대를 쓰고 걸어가려니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정말 무섭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봉개초등학교는 공동으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4월 14일 봉개교 4~6학년 11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장애체험활동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과 사용방법 등을 강사로부터 들은 뒤 세그류로 나뉜 휠체어 체험, 흰지팡이 체험, 목발 체험 등을 번갈아 했다.

휠체어를 타서 경사로를 오르고 턱을 넘었으며, 2인 1조

로 한명은 도우미 역할을 하고 다른 한명은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흰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장애인의 일상을 경험했다.

휠체어를 처음 타봤다는 강용식 어린이는 “팔도 아프고 방향 조절도 잘 안되니깐 답답하기만 했어요. 경사로가 왜 필요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휠체어를 탔는데 앞에 계단만 있다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편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 학교 보건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식사도구 세트와 시각장애인용 호텔로 게임기, 점자책, 음성택상기계, 스포링 가위, 손가락지지용 타이핑 막대, 소리 나는 축구공, 책장 넘기는 도구, 지퍼 올리는 도구, 한 손



△봉개초등학교 학생들이 안대를 쓴 채 흰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애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 손톱깎이 등 장애인생활용품 전시했다.

특히 안대 쓰고 동전 구분하기, 한 손으로 와이셔츠 입어보기, 끈 달린 양말 신기 도구를 이용하여 양말 신어보기, 입모양 읽어 의사소통 해보기 등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봉개교 관계자는 “이번 행사

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와 배려가 몸에 배인 인성이 큰 학생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한맥사회복지사대상 수상

제주시립희망원 박장혜 원장은 4월 1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



서 열린 제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평생을 바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맥사회복지사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맥사회복지사대상은 매년 열성적인 활동을 펼치는 사회복지사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예수부활나눔대축제’ 실시

항사평사랑나눔공동체

항사평 성지 내 사랑나눔공동체인 제주애덕의집(원장 이대원), 가롤로의집(원장 박지홍), 일배움터(원장 최영열), 성가정노인복지센터(원장 강유순)는 부활절을 맞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수부활나눔대축제’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기간 시설 생활인과 직원, 자원봉사자는 함께 정성이 듬뿍 담긴 부활달걀을 만들어 한 해 동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각 기관·단체·후원인들에게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4월 12일 부활대축일에는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모여 부활대축일 미사를 드리고, 놀이마당을 함께 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제주복지관에 물품 전달

우리은행 신제주지점

우리은행 신제주지점(지점장 강병호) 자원봉사단은 3월 21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을 방문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도시락에 사용될 쌀을 기탁하고, 노인가구를 찾아 가사지원 활동을 펼쳤다.

강병호 지점장은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2009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4월 7일 제주시니어클럽 정실교육장에서 2009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 공익형·복지형 일자리사업 참가자 20여명에게 직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사업 참가자들은 오는 12월 13일까지 학교와 복지시설에서 급식도우미와 돌봄이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가의집 '난타교실' 운영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지적장애인들의 주도적 문화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인 ‘난타교실’을 3월 17일 개강했다.

난타교실은 제주타악기양상블 소속 전문강사의 지도로 아가의집 생활인들과 함덕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멘토링프로그램 결연식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이시권)는 4월 10일 멘토자원봉사자 16명과 도내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선서하고 다짐한 16명의 멘토와 멘티는 앞으로 1년간 정기적인 만남과 단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북초-제주시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는 4월 20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원활하게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라파엘약사회, 아이오름에 의약품 전달



제주라파엘약사회(회장 성길홍)는 4월 17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이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인 아이오름에 2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 전달했다.

라파엘약사회는 2007년부터 아이오름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펼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케어하우스, 자원봉사자와 봄나들이



제주케어하우스는 4월 11일 우체국적십자봉사회(회장 고운재)와 한아름적십자봉사회(회장 김장생)의 지원을 받아 봄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은 따뜻한 봄 햇살 속에 화려한 우리조형의 세계가 펼쳐지는 제주유리의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애인 '끼·재능' 맘껏 뽐냈어요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이대원)는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을 받아 '2009년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했다.〈사진〉

이 행사는 공연과 창작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암재활원, 제주애덕의집 등 15개 제주도장애인시설협회 시설장애인과 관계자 900여명이 참석했다.

예능발표회에서는 난타, 댄스, 탈춤 등 9개팀이 출연해 그 동안 틈틈이 갖고 닦은 재능을 뽐냈고, 체험의 장에서는 비누만들기, 즉석사진찍기, 호떡만들기, 풍선아트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만든 그림, 한지 공예, 모형만들기 등의 작품을 전시해 자신의 솜씨를 뽐냈으며 많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어울림의 장에서는 일본 초청 공연팀인 돈마이팀이 출연, 일본의 전통 북 연주를 선보였다. 결성된 지 올해로 10년째인 돈마이팀은 장애인, 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일본 전통 북 연주단체로 5년 전부터 제주애덕의집과 결연을 맺고



해마다 초청공연과 방문 등을 통해 한·일 장애인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양모씨(지적장애 3급)는 “공연구경도 신나고요,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제가 만든 풍선아트 예쁘죠?”라며 두 손 가득 직접 만든 물건들을 자랑했다.

자리를 함께한 장애인 어머니 한모씨는 “우리 딸이 공연연습을 하면서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반 대견함 반 하는 심정이었는데, 오늘 막상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모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대원 회장은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장애인들이 맘껏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이번 행사는 그런 마음을 담아 세상에 당당히 외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알/림/마/당

■ 은빛마음학교 수강생 모집

제주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은빛마음학교 1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은빛마음학교는 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4가지 유형별 맞춤형 학습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실습이 무료로 마련됐다.

교육형에 마음공부, 인문학강좌, 미술치료 등이, 여가형에 웃음치료, 마술강좌, 노래교실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 또 건강형에 노인성교육, 양·한방건강 등과 희망형에 죽음교육, 호스피스 등이 개설돼 총 24강좌로 구성됐다.

오는 14일 개강해 11월까지 주 1회(목요일) 운영된다.

문의=745-3999, 010-2811-4438.

■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효 공모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효(孝)문화를 발굴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식 확대와 더불어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孝) 공모전'을 실시한다. 효(孝)와 관련된 내용을 체험수기 또는 시로 표현해 출품하면 된다.

홈페이지(www.jejunoin.org)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응모작품을 오는 29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초·중·고 1명씩, 총 3명에게 최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우수상(초·중·고 각 2명)과 장려상(초·중·고 각 3명)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문의=757-3400.

일배움터, 녹색원예사업단 출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4월 2일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녹색원예사업단을 출범했다.

녹색원예사업단은 원예식물 재배, 화훼관리사업, 정원관리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배움터는 치료정원 전문회사 푸르네(대표 이성현)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직업적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일배움터와 푸르네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향상을 위해 공동의 역할을 수



행하기로 했다.

일배움터는 각종 화훼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내 전 지역에 꽃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화단조성사업 및 미니정원조성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배움터는 2008년 12월 사회적기업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됐다.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 1000만원 기탁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황용)는 4월 16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를 방문, 공항주변 소음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소음지역 내에 위치한 도리초등학교 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급식 및 교육활동비로 지원된다.

김황용 본부장은 “앞으로도



제주공항 주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학교에 정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제4회 춘강배 장애인바둑대회 열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장애인들의 문화·스포츠 활동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건전한 취미·여가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4회 춘강배 장애인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전국 6개 시·도 대표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여성장애인 오목대회와 시각장애인 오델로대회도 열렸다.

다음은 대회 결과.

▲바둑대회 △유단자조(3급 이상)=우승 정준성(지체장애), 준우승 신영길(〃), 3위 양기찬·송중택(시각장애) △갑조(4~5급)=우승

고동규(신장장애), 준우승 김종주(청각장애), 3위 김홍주·정충후(지체장애) △을조(6~7급)=우승 강정수(지체장애), 준우승 현재훈(신장장애), 3위 송운호·오화준(지체장애) △병조(8~9급)=우승 안창호(지체장애), 준우승 장준영(안면장애), 3위 김진섭(지체장애) ▲양호인(정신장애) △초급부(10급 이하)=우승 우승재(지체장애), 준우승 한복섭(〃), 3위 강상무(청각장애)·신민정(지체장애) ▲오목대회=우승 김양희, 준우승 최명자, 3위 이상혜·신주희 ▲오델로대회=우승 문정국, 준우승 신충열, 3위 임효숙·김미선

열린 '2009 제주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 5km코스에 참가해 참가자 전원이 완주했다.

가톨릭의집 생활인들은 마라톤 대회를 위해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운동하며 준비했다.



NIE지도사양성과정 운영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은 여성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NIE(신문활용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NIE(신문활용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은 여성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어케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는 7월까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 자격시험 대비교육, 대화기법 및 학습관리교육,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지원 및 커리어컨설팅 등 다양한 사후관리가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NIE(신문활용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여성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국제평화마라톤 참가 가톨릭의집 생활인

가톨릭의집 모든 생활인과 전 직원은 제주능협 애덕팀과 일대일 짝을 이뤄 3월 29일

시론

리더(Reader)는 곧, 리더(Leader)의 토양이다



김 범 훈
제주일보본설위원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 이었다.

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 낭송, 독서 토론, 독서 퀴즈, 도서 교환, 희망도서 지원, 제주의 언어와 문화가 담긴 그림책 전시, 연인끼리 책과 장미 선물하기 등 책을 위한 갖가지 향연이 펼쳐졌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반가운 일이다.

책 읽기 21세기 경쟁력 제고

하지만 이날 하루 반짝 행사로 갈음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게도 우리 국민의 평균 독서량은 초라하기 짝이 없기 때

문이다.

출판통계를 보면 1년에 단 1권의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3명 중 1명꼴이다. 어른들은 스스로 책 읽기를 멀리하고 자녀들에게만 책 읽기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가구별 도서구입비는 월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독서시간도 TV 시청의 5분의 1수준이 고작이다.

이쯤 되면 '책을 덜 읽는 국민'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라 해야 맞다.

이는 사회전반에 책을 읽는 기풍이 자리하지 않는 탓도 크지만 영상매체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강력한 흡인력이 책 읽기를 외면하는 세태를 부채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상문화는 일방적 콘텐츠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이다. 이에 몰입할수록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잃게 된다.

반면, 검증된 '책 읽기'는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증진시켜 준다. 나아가 비판적 사고와 대안적 미래예측 능력으로까지 연결시켜준다.

책 읽기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동서고금을 보면 세계의 위대한 리더(Leader)들은 멋진 독서

광들이었다.

흑인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링컨은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길을 걸어가갈 때도, 농장 일을 할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링컨이란 위대한 리더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아 탄생한 것이다.

'독서제주' '독서 한국' 기대

세계 최고의 갑부인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은 "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책을 사줄 것이다"라고 했다.

어릴 적 도서관에서 몸에 익힌 독서습관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석학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 역시 "미래는 지금 책을 읽는 청소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독서만한 투자가 없다.

세계일류의 성취에서 보았듯이 책을 읽는 자(Reader)만이 리더 즉,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기회의 시대다. 책에서 길을 찾는 '독서 제주', '독서 한국'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칼럼

주 희



김 길 용
수필가·시인

주희는 우리 집과 북쪽으로 한 울타리 짓고 있는 이웃집 5년 1남 중 셋째 딸이다. 아들 귀한 집에 셋째라 귀여움 받기는 글렀을 텐데다 선천성소아마비로 태어났으니 그 부모 애께나 댔을 게다.

주희는 어릴 적부터 두 발로 걸어 보지 못한 채 컸다. 그것도 영지학교에 다니면서 그곳 기숙사에 살아 주말에나 집에 와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성장배경 속에.

힘겨웠던 유년 극복...사회복지사로 성장

얼굴이 선하게 생긴 주희는 웃음까지 여러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곤 했다. 내가 시내 한 학교에서 장애학생 우수상을 받는 아이를 데리고 담임 선생과 함께 영지학교에 갔던 일이 있다. 그날은 마침 그 학교 졸업식날이기도 했는데 주희가 최우수상을 받는 걸 지켜보게 됐다. 이웃집 아이라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제일 큰 박수를 쳤을 것이다. 주희에게 다가가 격려와 칭찬을 보냈음은 물론이다.

그때 고교 과정을 마친 주희가 육지 어느 대학엔가 진학했다는 소리만 들었다. 한데 엇그제 고교에서 주희를 만났다. 가파른 동산을 목발 짚고 걸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걷고 있잖은가. 어릴 적에 그 부모가 삼발이 자전거에 태우고 경사로 같은 인근 오르막길을 타게 하던 장면으로 오버랩됐다. 조금 출렁거리긴 해도 어렵잖게 걸어오고 있는 주희.

세월이 흘러 그새 4년이 지나 있었다. 주희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내가 이 동네로 이사온 게 6살 때다. 지금은 스물넷,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으니 주희라고 마구 불러대기가 좀 거북하게 그렇게 커 있는 것이다.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몇 마디 물었다. 나사렛대학교 복지학과를 나왔다는 것, 시내 어느 재단의 시설에 파트타임으로 갓 출근을 시작했다 한다.

검은 테 안경 너머 눈이 반짝이고 있다. 대학을 나온 주희의 눈은 이전 아이 때의 눈이 아니었다. 지식인의 눈이고 성숙한 처녀의 눈빛이었다. 눈썹미도 있어 보였다. 아마 책도 많이 읽었으리라. "주희야, 부지런히 일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라." 그냥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됐다.

며칠 뒤, 오늘 주희에게 책 몇 권을 건넸다. 내 수필집과 두 권의 시집 그리고 동인지와 동인 여류 한 분의 수필집을 합해 모두 다섯 권. 무척 좋아했다.

조금 있으면 오늘도 대처에 나갔던 주희가 목발 짚고 이 길을 올라올 시간이다. 힘겨울 것 같지만 주희는 환하고 맑게 웃고 있으리라.

기고

정혁이의 이야기 2(유년기)



김 선 옥

정혁이가 나아지려면 병원과 일치되게 치료를 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은 나를 불러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주문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 아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전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료한 만큼만 좋아지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 치료에 매진해야 하며 현재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재산을 물려줘도 지킬 수 없으니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집에서 제일 환한 방을

주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 등을 지시하였다.

정말 전쟁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정혁이와 함께였다. 하루가 꼬박 걸려도 동전만한 풍선에 색을 칠하지 못했다. 밥을 혼자 먹지도 못했고, 양말을 신거나 옷을 입는 것도 불가능했다. 무언가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낮인지, 밤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엄마 이름이 무엇인지..., 세 살이면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도 전혀 정혁이는 알지 못했다. 알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다.

끊임없는 반복교육을 시작했다. 동전만한 풍선에서 큰 풍선으로 색칠을 시도했고 커다란 스케치북에 줄을 그어 그, 나 공부도 시작했다. 수의 개념도 같이 했으며 지금이 언제인지, 엄마 이름, 양말신기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

과 최소한의 기초 공부를 단 하루도 빠지 않고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끝없이 반복 학습을 시작했다. 한글 익히기와 수의 개념, 계절, 시간, 정혁이를 둘러싼 조건들, 매일 매일 눈을 떠서 잠이 들기 전까지 수업을 했다. 몸의 근육이 정지되고 많이 뒤틀려서 개인 코치를 두고 수영도 시작했다. 아무 의욕도 없는 아이를 얹혀 놓고 수업과 운동을 끝없이 했다.

그러자 정혁이가 점차 글을 알기 시작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글을 알면서 책에 빠지기 시작했고 책에 나온 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수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일기를 쓰게 하였다. 일기가 너무 짧고 엉망이면 내가 불러 주었다.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정혁이는 나름대로 아주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1,220,000	1,22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915,000	915,000
복지사업후원	1,805,000	652,19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장애 영유아 조기 진단 평가체계 절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는 조윤경 교수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조윤경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윤경 교수 '장애아보육 질적 실행 과제' 발제 특수교사 처우개선 위한 특단 지원책 요구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조윤경 교수는 '장애아보육의 질적인 실행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아에 대한 선별·진단·배치 및 서비스 제공까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장애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할 수 있다면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질을 육성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은 장애아동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은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과 전담보육시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아가 보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자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진단·배치 등 서비스 제공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장애아의 선별·진단·배치 및 서비스 제공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장애아에 대한 조기 중재와 개입으로 장애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며 조기 중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재의 전달체계에 장애아에 대한 선별·진단·배치 및 서비스 제공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기관 설치가 시급하다”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 구축

은 또 다른 분절된 전달체계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장애아보육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취학 전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전체 장애아동 약 4만명(2002년 기준)의 43.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동들만이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는 등 서비스 수혜율이 낮다”면서 “조기 중재 서비스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3~5세 아동의 의무교육 시행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적인 장애아 보육을 위해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질”이라며 “장애아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선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보육시설 특수교사는 학교 특수교사보다 1000만원 가량 연봉을 적게 받고, 이런 급여 차이로 특수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 9명 미만의 통합보육이 대체를 이루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아기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 입소하는 장애아동은 대체로 장애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중도장애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조기의 다영역적인 협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도장애아에게 통합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담 보육시설이 아닌 통합 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미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을 토대로 장애인부모와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들이 제주도의 기능을 살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보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김영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

국공립보육시설서 장애아 통합보육 이뤄져야 보육현장 의견 수렴...수요자중심 서비스 제공

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과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20여곳으로 확충할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2009년 현재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모두 민간보육시설이며, 제주도내 17곳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안정적인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돼 있기에 장애아통합보육은 매우

평등정책과장은 “장애아 보육은 물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정책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아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수보육시설의 확충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시설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 보육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육정책에 반영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양정선 명예기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마련한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혜정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We can We do all**(우리 장애인에게는 불가능은 없다)이라는 가치를 이념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능력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독립 재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전문사회 복지기관이다.

“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선정 - 도자기상패 만들기 사업 ”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선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제품소개



● 취급제품 : 상패, 트로피, 기념품 (천연비누)



* 작업모습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카페 <http://www.daum.net/wecanwedo>

연락처 064-783-9920 (담당자_김승현 010-9910-4114)